

소나무 고목과 함께 자라는 신목의 음나무



지정번호 강원-영월-30
지정년도 2003
관리기관 영월
수령 421년
수고 16m
흉고둘레 3,5m



강원도 영월군 중동면
녹전리 966
37° 07' 57.78" N
128° 43' 28.55" E



음나무는 엄나무라 부른다. 보호수(강원-영월-30) 음 나무는 421년을 살고 있으며, 특이하게도 400년을 훨씬 넘긴 소나무가 그 옆에서 사이좋게 자라고 있다. 녹 전리는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에 속하는 마을로, 1914 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녹반리와 유전리의 지명 에서 한 자씩 따서 '녹전리'가 되었다. 녹전리의 응고 개는 31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 많이 이용하였던 고 개이다. 이 고개 마을은 태백산 신령이 되어 가는 단 종에게 머루를 바치는 영정이 모셔져 있었으나 1972 년 당집과 함께 불태워졌다. 그러나 그 자리는 수백 년 이 지난 지금도 음나무(개드릅나무, 엄나무) 당목이 남 아 있다. 예전에는 음나무 당목이 있는 곳은 신성시되 었는데, 정월 대보름날 돼지를 잡고 떡, 삼색실과, 메 를 지어 놓고 고사를 지냈으며, 제를 지낸 후에는 좌 상 어른이 마을에서 잘못된 사람을 꾸짖고, 싸운 사람 들을 화해 시키는 등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 다. 고사가 끝나면 돼지고기와 음식들은 마을에서 나 누어 먹었다.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단종의 영정 을 모신 유전리(지금은 녹전리에 포함)의 서낭당은 녹 전초등학교를 지나 유전마을로 가는 도로 좌측에 있 다. 응고개 서낭당은 1972년 새마을운동 때 미신 타파 정책에 따라 불태워졌지만 유전리의 당집은 불태운다 는 소문이 나자 마을 어른들이 서낭당에 기거하면서 까지 반대하여 소실되는 것을 막았다. 일설에는 단종 이 세조에 의하여 영월에 안치되었다가 시해되어 돌아 갔을 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시신을 수 습할 엄두를 못 내었다. 그러나 호장(戶長) 엄흥도(嚴興道) 는 가족 대대로 멸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튿날 옥가(獄街) 를 오가며 통곡한 후 관을 마련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모아 영월의 북쪽 동을지(冬乙)에 장사 지냈다. 그 후 그는 벼슬을 내놓고 아들과 함께 숨어 살았다. 그 엄 흥도가 죽어서도 단종을 보필하겠다고 음나무가 되었 다고 한다. 마을 사람들은 단종의 영혼이 영월을 떠나 태백으로 가서 태백산의 산신령이 된 것으로 믿고 있 다. 이를 직시하면 영월에서 태백에 이르는 길 곳곳의 성황당(서낭당)은 신목으로 음나무를 심은 곳이 많다.